

ㅈ세보신후도 주시며 왓짐이 마춤심심하고 네임의 왓스니 일곡을 다시 불나 동홍이
 쌀어 밧ㅈ와 향월하야 알연이 혼소리를 알외니 상이 칭찬불이 하시고 다 시문왓네 무슴
 다 른 품류아는 다 홍월약간 비홈이 잇스오니 박이 부정하오나 명디로 알외오리이다 상
 이대 회하야 궁중에 잇는 악곡를 가져오라 하샤 츠데로 시험하시니 홍이 평성비 혼바를
 다 하야 지조를 나타내니 상이 칭찬하시고 후이 상스하야 내여 보낼시 하교 왓한가 혼날
 다시 차즈리라 홍이 돈슈하더라 쇼인이 엇지 일동일절을 삼가지 아니리 오츠시 참지 정스
 반드시 괴회를 빌니 시느니 인군이 엇지 일동일절을 삼가지 아니리 오츠시 참지 정스
 군이가 품을 승습하야 쇼인의 심장으로 인주를 통략하야 위권을 천단코저 하더니 연왕
 의관 일지충과 동련지지로 제위릉송하고 대공을 세위명망훈업이 날로 환혁함을 보고
 홍두여장을 펴곳이 업서 괴운이 저상훈중등과 지초에 답전론박함과 문희지연에 구혼
 랑패한 현원이 텅텅한지라 ㅈ연심식변퇴하야 울을 성병하니 날마다 성식 품류들 갖가
 이하야 ㅁ음을 위로 할시 잡류쇼년이 문하에 출입하느니 재만더니 일일은 일기쇼년이 동
 홍의 말을 고하거늘로 군은 괴경한 재라 일일이 듯고 심중에 대회하야 다시 ㅁ만하문왓
 내버슬이 지렬에 처하야 조령대 쇼스를 모름이 업거늘 일즉이 말을 듯지 못하얏스니 이
 는 쇼년의 말이 랑설인가 하노라 쇼년왓 전설을 드림이 아니라 장안쇼년이 홍을 다리고
 놀다가 목겨 혼바오또 혼그 후에 동홍을 자로 맛나수 츠드렛스니 엇지 랑설이 리잇고 참
 정이 정석왓이는 황상이 스스roi하신 일이라 쇼년은 경솔이 전파치말라 그 쇼년이 샤

레왓합해맛춤 품류를 도아 하시기 말함이니 엇지 감히 비밀한 일을 루설하리잇고 참정
 이깁쇼왓슈연이나 내게는 허물할배업고 또 혼이런 류를 스랑하노니 혼변중용이 불너
 오라 쇼년이 응락하고 가니라 츠시로 군이 쇼년을 보내고 별당에 갑히누어 향벽하야 삼
 일삼야를 불연불쇼하고 경류이 만흔 모양이 러니 수일후 그 쇼년이 과연 일기미남ㅈ를
 다리고 오거늘로 군이 좌우를 물니 고몸을 니러 마저 왓더 쇼년이 동성이 아니냐 홍이 준
 순피석왓홍은 미천한 사람이라 합하의 관디하심을 감히 당치 못하느이다 참정이 괴용
 왓쇼년의 성향이 미산이 아니냐 홍왓그러하느이다 참정이 더욱 공경왓미산동씨근본
 디대성이라 화주연원을로 뷔ㅈ세하야노니 엇지 중간에 침체하야 관면이 업슴으로 디
 접지아니리 오넷적의 완천되는 일기명석로 되고인을 위하야 거른 고를 듯스니 내또 혼
 그디의 높흔 지조를 듯고 혼변청하미로다 동홍이 샤레하고 소매속으로 적은 동쇼를 내
 야수곡을 볼때 참정이 칭찬하고 본디 품류에 ㅁ음이 잇지아닌지라 홍을 만류하야 셔당
 에두엇더니 일일은 익레황명을 밧ㅈ와 홍을 차자로 참정부중에 니르렛거늘 홍이로 군
 을 보고 입궐함을 고하니 참정이 대회하야 ㅁ만허수어를 ㅁ르쳐보내니라 츠시 동홍이
 익레를 셔라 입궐하니 임의야 심흔지라 편견에 게시샤 근시를 다리고 노르실셔
 홍을 명하야 면상에 오르라 하시고 다시 ㅈ세보심애의 궤더욱 선명하고 용되더욱 아름
 다와 남중국적이라 상이 미쇼하시고 수곡 품류들 드르신 후 문왓짐이 너를 갖가이 두고
 저하니 내소원이 무엇이뇨 홍이 돈슈왓쇼인이 미천한 종적으로던 총을 남스와 자로 갖

가이되심을엇스오나채채를를하야그도보할바를아지못하오니무슴소원이잇스오
 리잇고상이미쇼하시며저슴부르신대홍왕성괴이에밋치시니신이엇지소회를알
 치아니리오구구소원은신의집이본디증영계죽으로한나라에밋쳐동락의연좌도죄
 인이되야츠츄락하와지금은천류에빠지오니구구소망은다시총효를다가구일가
 성을차줄가하느이다상이드르시고일변죽연이녀이시며일변그뜻을괴특이알으샤
 좌우를보시며왕군지덕도오세이참이오쇼인지덕도오세이참하느니동락의죄명
 이비록천고에신설치못하려니와엇지그조손아닌디밋쳐지금까지폐인이되리오하
 시고다시홍드려문왕네능히글자를아는다홍왕약잔비홈이잇느니이다상이넉히노
 혼칙을주시며넉으라하신대홍이박조와무릅을쓰고광연이넉으니그소리연이옥
 을바아는듯또흔를려에합하거늘상이셔안을치시며크게칭찬하시고다시근시를보
 시며왕선비일경을동흔죽스데하느법이아니냐좌위엇지련의를모르리오일시에국
 궁왕그러하니이다상이즉사스데하시고처화법악을스하샤즉시로참정부중으로도
 라을식상이또하교왕동홍의데턱을궁궐갓가지어주라하시니조영이그곡절을몰
 나의아하느니라익일어스대부소유경이상소하느니그소에왕

設科取士 國家用人之法

光明正大

私事

설과취士는 국가용인지법이라 반드시 광명정대히 하야 스시업고 공변되게 하실지
 니 비록 동홍의 위인을 보지 못하얏스오나 폐해그 인지를 취하실진대 맛당히 다스를

董洪 爲人

陛下 人材

多士

才操 比較

上自朝廷

下至四海

모으샤 지조를 비교하야 상조영으로 하지스히하듯는자로 하야 곰의론이업게하

半夜禁中 秘密

鄭重

恩寵

莫大

科甲

실지라 엇지 반야금중에 비밀이 부르샤 정중훈은 총과 막대훈과 갑을흔터럭곳치돌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녀주시니 잇가 읍하다 더수 풀아래와 언덕밋에 문혀진 집을 의지하야 부피주리고 처

子妻涼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저쳐량흔증척상을디하야 독서하느궁유서성이목이므로고괴운이진하야 부모를

子妻涼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씩이고정신을허비하야서리털이귀밋을침노하나단심이북궐을첨양하야 부모를

子妻涼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조를위로왕명런지우에게시니 지조를 닦근즉비리지아나시리라 하다가 만일이 소

子妻涼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문을드른즉반드시척을덥고 할루왕고인이나를속이도다 만권서척을복중에너호

子妻涼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나주린창조를퍼지못하며 고금성패를심중에기간하나조신지영을썩하기어려오

子妻涼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니이길이업슨즉십년황권이빙궁을돕고매를맞는즉일곡성황도부귀를엇으리라

子妻涼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하야장초장옥이귀고청경을엇보는재잇슬가하오니엇지스괴를길너인지를장발

子妻涼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하느본의리잇고복원폐하는동홍의과명을거두샤나라의용인지법을삼가게하쇼

子妻涼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서

子妻涼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추시빅관이조반에올랐더니상이쇼어스의상소를보시고천안이불열하샤왕근일조

子妻涼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속루몽권지이 데이십오회

子妻涼 冊床 對

讀書

窮儒書生

丹心

北闕

瞻仰

父母妻

一六一

당의용인함이일호스시업느나엇지짐은일인을쓰지못하리오하시기거늘참지정스로
군이주왕동홍이비록미천하나본디문벌은혁혁훈대성이라폐해이제장발하시니만
구일담이성덕을칭송하거늘소유경이이긋치장대함은신이그뜻을히득지못하느이
다윤각되주왕국조과법이일즉조영모르케하느배업스오니만일이길이열년즉후폐
무궁홀지니소유경의상쇠이를념려함인가하느이다로참정이분연이주왕비록지상
귀인이라도다각각수기문각이엇거늘폐해이제만승지존으로일기동홍을들여쓰지
못하시리잇고신은듯스오니동홍을답전에취지하사능히경서장귀를감다하오니
엇지공되아니라하리잇고상이진로하사어스대부소유경을삭직하라하신대연왕이
출반주왕간관은조영이목이라폐해이제간관을죄주사이목을막으시니엇지씨허물
을듯고저하시느잇가가령소유경의상쇠과하다홀지라도폐해용납하사그직책을다
함을포장하실지니하를며잔하느말이당연하리잇고폐해이제조영봉인이스시업느
나하시니신등이불초무상하와공도로용인치못하오니맛당히그죄를벌히사티만함
을동독하실지라엇지격훈말씀으로신자를억하사하여곰기구치못하게하시느니
잇가신등이스스를조차공도를해함은폐하를괴망하야제목을닛고저함이니그죄만
스무척이오나폐해이를인연하사과환을스정으로쓰고저하심은장차누구를리코저
하심이니잇고조영은폐하의조영이오런하느폐하의던해라불초훈신자를다리사폐
해비록십분공심을두시나신등의찬양함이이긋치무상하거늘이제만일지상의문각

을본바드사스스로쓰고저하신즉이느상해각승하야서로스정을들이니폐하의조영
과련하를취다스리리잇고신이긋하야소유경을구하고동홍을론박함이아니라간관
을죄주심은인군의실덕이어늘조영의론이도로혀소유경을론죄하야폐하로하야곰
과실을듯잡지아니시게하시니신이그한심함을이괴지못하느이다이때연왕의알외
느말씀이십분군절훈중충직명쾌하느로군의간사함으로도말이막히고괴운이저상
하야등우에찬답이물흐르듯하느니런지이연이우으시며왕인군을잔함에이긋치함
지니경의말은가위금석지론이라슈연이나동홍은과연짐의총이하느배라임의스데
하얏스니엇지환슈하리오소유경은도로셔용하야직업을환급하라하신후빅관이되
조함애상이연왕을만류하사답전에안즘을명하시고련안에화괴용용하사미미쇼왕
짐이얼골로취인하느병통이잇더니동홍은진기괴절훈인물이라즘영환족으로천인
됨을추연하야장발코저함이니경등은용서하라짐이장차홍을명하야경을가보게함
지니짐을위하야교훈지도하라연왕이황공돈슈왕신이비록불충하오니군부의스랑
하시느바를엇지스랑치아니리잇고다만념려하느바느그천심을모르시고외모만취
하며도로리장발치아니시고편벽되이스랑하신즉타일추회됨이게실가하느이다상
왕홍은불과령리훈인물이라무슨후폐됨이잇스리오하시더라연왕이즉시되쇼하야
래공씩랍전슈작을일일이고하고왕동홍은비록보지를못하엿스오니로군의당돌간
악함이적지아니훈근심이로소이다하느니흔재일장명함을드리거늘본즉동홍이라

연왕이 즉시 그 침소로 드러오라 하니 동홍이 오사 룯포로 승당비 알홀시 연왕이 봉안
을 홀녀 잠잔 봄애 옥안에 도화식을 띄엿스며 춘산긋흔 눈섭에 잉슬이 분명하야 섭분녀
즈기상이 잇더라 연왕이 화혼얼골로 문왕군의 년과 몇치 노홍알 십구세니 이다 연왕이
우왕련은 이 망극하사 군을 더우치 장발하사니 엇지 보답고져하느뇨 홍이 초언을 듯고
눈을 들어 연왕의 그식을 슬히여 왕홍은 천성이라 합하의 교혼하심을 듯조울가하느이
다 연왕이 쇼왕내 무어슬 알니 오마는 군은 다 만군의 몸을 닮지 말라 동홍이 당황무어하
거늘 연왕이 다시 웃고 왕군이 내 말을 몰나 듯나 지식이 되야 불효하며 신해되야 불충
흔즉 그 죄어는 곳에 밋츠리 오슈령을 보전치 못할지니 엇지 몸을 나 좀이 아니냐 동홍이
면여도 석하야 다시 대답지 못하고 도라와로 군을 보고 왕연왕은 심상하사름이 아니라
이다 혼마디 말에 청련벽력이 쏩뒤를 치는 듯홍의 등에 저즌 썸이 지금까지 마르지아니
하니 이다 하고 마르치든 말을 고하니로 군이 링쇼왕세간의 총신이 몇몇치리오 초나라
골삼려와 오나라 오조셔는 만고 총신이나 청강어복에 찬썸을 장스고 백마한 조에 원
혼이 되얏스니 이는다 썸은 선비의 심상한 말이로 다 홍이 묵묵히 섰다가 서당으로 도라
가니라 차설로 군이 일기누의 잇서 연왕과 동홍하다가 랑패후그아름다운 부덕이 업
슴으로 저마다 결혼코져아니 함애 년방삽철에 듯는 미화를 탄식하더니 조고로 쇼인이
일을 경영홀애 엇지 룯기를 알며 데모를 도라보리오 초시로 군이런지 동홍을 총이하심
을 보고 홍과 남미지의 룯를 밋고져하야 심중에 생각되홍으로누의 비필이 되게 할즉누

屈三閭
伍子胥

의 전정의 부귀는 말할배업고 내또한 이를 인연하야 묘리잇스리라 하고 의 일홍을 종용
이 불너 왕로 뷔군의 용모 지국을 봄에 타일대귀하러니 와다만디 별이 미천함을 조명이
의심하야 환로에 방해로을 지라로 부에게 혼누의 잇스니 지덕이또한 늑에게 뒤지지아
닐가하노니 군이이제 백량으로 마저로 부와 남미된즉 천일홍을 신설할뿐아니라로
뷔또한 나이만코벼슬이 높하선진지렬에 처하얏스니 군을 위하야 전정의 주선함이잇
스리라 동홍이 피석사례하며 불감함을 스양하니 참정이 쇼왕디 별로 사름을 의문함은
근일풍과 사름이 잘난즉 천인도 굴기하야 흰혁흔 문회되고 사름이 못난즉 명문거족
이라도가 성을 보전치 못하느니 내 엇지 이를 구애하리오 하고 즉시 턱일성례할시런지
드르시고 잡치빅필을 부조하시고 홍을 조신던 후스를 비하사니 이도 특별이 장발코져
하심이라 조명빅관이런의를 봉승하야 모다로 참정부중에 이르러 연석에 참여하나오
즉 연왕과 윤각로 소어스황여옥되던 풍동초마달 십여인이 참여치아니하니 일로 조차
조명의론이 피격하야 청개준지혼자는로 군의 비루아담함을 비척하야 연왕에게 붓치
니 초소위청당이오 랑권락세하야 환득환실하느자는 연왕의 정대임위함을 슬케 녀여
동홍로 군에게 붓치니 초소위탁당이라 이때 청탁량당이 조명에 버렸스니런지 비록청
당을올케 녀이시고 탁당을글니 녀이시나 음식으로 비흔즉 속속의 담함은 저마다 무미
히알고 고량의 들은사름마다 취하며 의복으로 말하흔즉 포빅의 겹소함은 저마다 숭상하
나금슈의 고음을사름마다 도하하느니 청당을 비록것호로 레디하사 연령게용하사나

漢文帝
鄧通

탁당을또호속으로스랑하샤은근히고호하시더라차셜수월후동홍의스데하신데탁
이일옴애홍이로쇼져를천영하야문호를추리고홍은미일대궐에입적하야황상의총
이하심이날로더하니홍이더욱삼가고조심하야진퇴유전이런의를맞초아입의혀
호며혹편복으로던넌에출입함이주야업스니궁중이한문대의등롱에게비하더라이
때던지근시를다리시고야연하실시홍이좌우에되서비록모든궁내응장성석으로별
곳치섯스나홍이호변눈을거듬더봄이엄거늘궁인이서로그쳐와동홍스난남중녀
지라하니상이더욱괴특이녀이샤전후상스하신거시루거만에지내니동홍이지물을
호하문직을무수이노아도하동정과변방쇼식을일일이알아밤이면던지를되셔가인
부조곳치슈작하니혹조당대신이밋쳐듯지못한바를홍이문져주달하느니라던지대
열하샤홍의말을만히밋으시고조당의용인함을왕왕상의하느니홍의문전에거매물
설듯하야지상귀인이그호변봄을영형이알더라일일은던지동홍드려문왈방금조당
의인귀들의론할진대니맛당히데일이되리오홍이돈슈왈지신은막여쥬라폐하의거
을곳호신총명으로엇지모르시리잇고상이쇼왈네말을듯고저함이니소견되로말하
라홍왈인군이신하를쓰심애장인이지목을쓰며과곳스오니큰나무는기동과들보를할
거시오가는나무는외를엮으며급은나무는춘혀로쓸거시오곳은나무는창호를몬들
지라연왕양창국은문위쌍전하고용모풍채고인을압도하느니인귀를말할진대연왕이
데일이오참지정스로균은문후이출중하고지국이과인호중위인이정세하고경륜이

紫宸殿

로련하니인귀로말할진대로균이들재가느이다상이칭찬하시니홍이다시주왈슈연
이나연왕은년쇼괴예하고출장입상하야안호로쇼권을잡고밖으로병권을가져명망
파위엄이런하에진동하니폐하이제그예귀를늘으샤권세를덜게하심이연왕을위하
시는뜻일가하오며로참정은던성이공근하고고스를열력하야정별환란에비록능함
이업스나승평례악에문치를찬양함은고인에뒤지아닐가하느이다상이미쇼하시
고익일로참정을조신던래혹스점경연시강원강관을비하샤날마다인견하시니일일은
은상이로균드려문왈근일조당에청당탁당이호여서로각립하다하느니엇지호일
홍이노로균왈당론이비록조고로잇는바나이는국가의복이아니라이호인심이괴겨
하고괴강이미약하야인군씩북치여공순환자는닐은탁당이라하고인군을필박하야
언론이각립환자는닐은청당이라하느이다상이우문왈청당은누령슈되며탁당은누
령슈되노로균왈폐해동홍을스랑하샤발신코져하시니홍은본디미천호가문이아니
라신이또호그인지를앗거남미지의를밋졌습더니조당의준격호의론이신을추세하
다지목하야신으로써탁당령슈라하오니신이엇지발명호오며연왕양창국은언론이
조당을진압하고위권이런하에우뢰곳하야스스로일기문호를일위비록균위라도뜻
을급쳐붓치일배업는고로의론이연왕으로청당령슈라하느이다상이묵묵히드르시
고즐겨아니하시니諭하다참언의망극함이여하회를보라

데이십륙회

례악을말하야로군이나라를그릇치고

충분이적동하야연왕이상소를올니다

說禮樂盧均誤國

激忠憤燕王上疏

각설던지로참정의말을드르시고심중에불열하샤의일조회에홀노연왕을머므르샤
 종용인견하시고문왕집이드르니근일조정에청탁당의론이싱긴다하니이엇지
 말이노연왕이주왕흥범에하얏스되왕되탕하야무편무당이라하얏스니곳하여인
 군의말하실배아니라신이아모리불충하오나엇지봉당을지어권을다도리잇가이
 불과스론이상적하야서로지목하느배니폐하느다만그착한자를쓰고불충한자를내
 치실지라당론으로써시비를분석고쳐말으쇼셔상이혼연이우으시며연왕의손을잡
 고왕집이경의충성을아노니엇지경을당론으로의심하리오마는우연이드름애일종
 준격훈의론이집의충의하느신하느일변탁당이라하니이엇지아름다운말이리오연
 왕이그복주왕이말숨이폐하압하느름은국가의복이아니라이느근부를겨동하야당
 론을돕고저하느자의일이오니복원폐하느그사름을멀니하쇼셔상이무연하시더니
 다시왕집이경의모음을알고경이집의모음을알지니종금이후로군신지전에서로겨
 함이업게하랴연왕이돈슈되출하야부중에도라와근심하거늘란성이종용문왕상공
 이연일번되하시니조정에무슨일이잇느니잇가연왕이탄왕작일황상이조당당론을

무르시고군신지전에서로겨하지말면게하시내다시알일말숨이잇스나이는반드
 시참언이형하야나의벼슬이높고권이중함을말숨함이라이엇지선조의뜻조을바리
 오내만일련의를승순하야충곡을다하잔죽이는군부를저버림이오직언극잔하
 야소회를은회치아닌죽이는참언의자구함을도아조정에일을너리힘이니금일쳐디
 가위진되량난이라또한동홍의헤헐함파로군의잔룩함이임의조정을탁한장본이
 나내대신지렬에잇서언관과다르니은밀한일을경솔히말숨치못할지라조연심중이
 번되함이로다란성왕조당대스름은너조의말할배아니오나상공의위망이구존하샤
 정히겸공조되실때오니브라건대언론풍치를심분도회하쇼셔연왕이미쇼하더라차
 설초시던저충명에지하샤만과지가에오허려한국이만흐신지라강연을파하신후시
 강제신을다리샤동홍의거문고를드르시더니로참정이또한것히시좌한지라련안이
 대열하샤로참정을보시며쇼왕고지성왕은만과지가에무엇으로쇼견하뇨참정이주
 왕만과의호번함을모음으로응접하느니심성공부로쇼견하느이다상왕엇지닐은심
 성공취노참정왕스희의지광함과만과의지중함으로그질고휴척이인군에게달넷스
 오니인군이만일이목으로숨히고슈죽으로건지고저한즉비록요순지성과문무지인
 으로도형치못할지라연고로고언에하얏스되제후는황황하코련조는목목이라하코
 우왕불치불롱이면불가위인가장이라하얏스오니비록한집의가장이되여도세무에
 찰찰한죽못쓰려든하물며련조는요연한일신으로만민을림하샤모음으로운화하시

니무릇모음이라하는거슨홍상활발하고체를힘이업슨후빅무를응접하고만피를총
찰하고로고지명왕은문저모음을공부하야심성을활발케하는이다상이우문왕집
이덕이업시보위에쳐하야비록금의옥석과이러호풍류를드르나적조창성의피한을
싱각호즉모음이구연하야그즐거움을세듯지못하는니엇지하면도호리로참정왕
고금이부동하고풍속이변하야도계삼등에모조를부전하던집이변하야고되광실과
구중궁궐이되얏스나오히려부족하고구목위소하고식목실하야희희호호하던빅성
이변하야례악형정과외장문물로다스리나화하기어려오니대법연하다스림은되여
러가지아니라산은듯스오니힘을슈고하는자는그일을이적고모음을슈고하는자는
그일을이크며덕으로다스림은쉽고법으로다스림은어렵다하오니복원폐하는덕을
다그샤런디의화피를부르시고모음을널리샤교화의체식함이업게하쇼셔상왕연즉
모음을널리며화피를부르느되무어시뇨로참정왕네성인이례악을지어던하를다스
리니례는싸를본밧고악은하늘을의방하야만민을교화하니그감응함이셀나그림지
형용을조츠름호흔지라한당이후로례악이문혀져교화를이루지못하고다만법령형정
으로치도를말하니이느그인군을요순지도로찬양치못하고오패지술로괴망함이라
연왕양창곡이등과지초에또호패도를말습하고로신이일즉론박함이잇스오나이는
후세의신하된재인군을만모하야당우삼덕로괴필치아니하고제환진문의스업을비
람이라폐해즉위이리로에덕이창문하시고신성문무하샤금일다행이변방이무스하

고빅성이안락하니로자는함포고복하야적양가를노래하고쇼자는슈무죽도하야강
구요를화답할지라오직폐해홀노심궁에쳐하샤유한호정신을무한이쓰시니좌우지
신이그어려움만말하고법령절초에종일구속호배되샤모음이판대치못하시니엇지
화피를부르리잇가신은써하되이때를두례악을닐희여우호로런디를법밧고아래로
인심을응하야태평지치를칭송호즉연화피를일울거시오상셔와복록이창성하야
국죄면원하고요순삼덕지화를다시불가하는이다습호다쇼인이인군을달님께반드
시말습을들게하고괴식을숨혀뜻을맞치는니차시던지춘취형성하시고풍류의벽이
계심을아는재집짓태평을칭송하고례악을말습하니엇지즐거듯지아니시리오상이
쇼왕집이덕이업스니엇지례악을창졸에말하리오마는경의말을드름애세드를배잇
도다집이근일신과무단이혼곤하야만피를당호즉정신이히티하고강연을림하면의
식지리하야스스로총명을슈습할길이업스니시험하야풍류로호변쇼창코저하는니
능히던악지관이되리오참정왕동홍이음률의죄비범하니죽히리원의직책을감
당할가하는이다상이대열하샤익일동홍을조신던혹스겸협를도위를비하샤날마다
후원에풍류로쇼창하시니이느조니로하심시오조명에서아는재업더라일일은로참
정이동협를을보고종용이닐니왕런지군을장발하샤던악지관을맞기시니맛당히직
책을힘쓸지라근일리원법악이드를거시업스니군은엇지악피를중슈하고악공을광
구하야런의를저버리지말를싱각지아니하는노동홍왕황상이아즉스스로쇼창코저

야흔가보오이다련지분이녀이샤비답하시니왈

朕一時消暢 卿深慮太過

짐이일시쇼창함을경의심래과하도다이는짐이년쇼덕박하야견부치못함이니

라

윤각되미안지교를받조와즉시금위부에서명하니로군이이에어스대부한응문과모

陛下萬機之暇 禮樂 天下 禍心 包藏

폐해만과지가에례악을송상하시니비록련하빅성이드르나화심을포장흔재아닌

즉다른말슴이업슬지라하를며심궁지쥬에일시쇼창하심을외간에밋쳐드를재업

左丞相尹衡文 張皇臚列 事幾 外間 興亡 朝夕

거늘이제좌승상윤형문이장황로렬하야스과의위티힘이흥망이조석에잇슬듯하

天下

야련하사름이혹든지못할가저허하니선등이그뜻을알지못하니이다만일글오디

從容諷諫 和平 氣色 威脅恐動 抑勒

충성이라할진대종용풍잔하야화평호괴식이업고위협공동하야억록홀의서잇스

心中 黨論 左祖 眼中 君父 法網 掃地 臣分

리오이는심중에당론을좌단하야안중에군부를몰나봄이니법강이소디하고신분

滅絕 伏願陛下 左丞相尹衡文 正刑懲罪 護黨之風 懲戒 無

이멸절함이라복원폐하는좌승상윤형문을정형징죄하샤호당지풍을징계하고무

君之習

군지습을곳치게하소서

상이남필에답왈

卿等 太過 大臣 本意

경등의말이래과하니대신의본의아니니라

로군이련하야잔관한응문우세충을격동하야윤각로와소어스를론죄하는상외비쌀

치듯하니츠시탁당이되각에버려괴세불니듯하니라상이일병부답하시니로군이

종용고왈되잔은조등의이목이라공의불을홀이이긋스오니윤형문의관작을잠잔샤

하고소유경을찬비하야공의를위로홀가하나이다상이침음하시다가허하시니조등

빅관이락담상괴하야다시잔홀재업더라츠시연왕이마츄미질이잇서수일조반에불

참하얏더니시일빅관이디루원에안저합문열기를기드릴셔로군이늦게야드러와또

흔원중에덩좌홀애만조빅관이다도와몸을나러문후흔대로군이링락하야일변디답

함이업거늘황각되압하나아가왈참정의쇼명함으로금일조등이이무슴모양이뇨우

리련은을넉스와외람흔벼슬이대신지렬에잇서맛당히진력하야국가휴척을조치홀

지니엇지봉당을닐희여이긋흔풍파를지으리오로뷔비록불스하나맛당히청당을진

압홀지니참정은또흔탁당을도제하야무단이상격함이업게하랴라참정이링쇼알금

일조등이무비황상의신제라엇지다른명목이잇스리오만성이임의탁당이무엇임을

모르거늘엇지도제하리오다만인군의과실을창언하야조과의명망을요구하자는자는

이닐은란신적지라이러흔무리를업시흔후청탁당론이조연진명홀가하노라인하야

한응문등을보며정식려성왕공등은디간에처하야역신을성토하되구명의쥐긋치괴

식을관망하니이엇진도리뇨하거늘좌위로참정의괴세를보고감히다시말홀재업더

라레부시랑황여옥이분함을이기지못하야출반직잔코저하니황각되대경왕내로참
정의거동을보라만일흔번축로흔죽내아비하은씨를고향에못지못할지니망녕된말
을구의에내지말지어다하거늘황시랑이홀일업서괴운을참고소리를삼켜집에도라
와죽시연왕을문병흔후로참정의말을고하니연왕이개연이몸을나려왈로군은잔악
흔무리라엇지그거동을본후에알니오다만황상의총명예지하심으로잠잔부운에
리오사일월지명이희석하시니내이에상소코저하노라좌우를보며조복을가져오라
하니황시랑왕합하의환회평복지못하시니곳하여입결치말으시고집에서표들을니
심이가할가하느이다연왕이탄왈금일지시비록적은듯하나국가의안위홍망이여괴
달녘스니그신지되야엇지안연이집에누어순례하야소분을밧치리오하고즉시조복
을코초고량천씨께고왈쇼지불효하와옥련봉하에수경박연을갈아속슈지공을못하
고쇼년등과하야국가에허신흔고로강남에적거하고남방에출전하야하로도슬하에
종용이되셔동추무반하노정성을퍼지못하얏더니금일또황상의과거하심을보옵고
아니잔치못할지라흔번잔하야뜻지아니신즉지지지삼하야령히부월을퍼치못할가
하오니이는다쇼조의불효흔죄로소이다래예왕대신의쳐디혹잔관과다름이업스라
연왕왕방금쇼정의스괴히연하야일기잔관이업시되얏스오니만일대신의쳐디로말
할진대흔번잔하야던의를돌니지못흔죽버슬을보리고스면함이사름마다형하느바
나쇼지편벽되이던은을넉스와심상문구로일언에긋침이불가할가하느이다래예탄

왈로뷔너를만득하야스랑으로길음에철제에비로소글을그르쳐십세후스군하느도
리를교훈하니구구소망이성주를되셔립신양명함을원하고곳하여구례지향을보람
이아니라금일오의잡은뜻이고인에붓그릴배업스니이노막대지회라로뷔거의여
감이업스리로다래예추연할루왈의진남정하고도와스방이무스함애모년슬하의
영화를종용이누릴가하얏더니또쇼정에일이싱긴가시부니즐거울거시업도다연왕
이화흔말숨으로위로왈쇼지비록불초하오나교훈을밧들어대죄에범치아닐지니모
친은십분관심하쇼셔하고침문에나올식유부인과홍란성손야채경황업시섯거늘연
왕이도라보지아니하고안식이씩씩하야바로디루원에드러가니임의오시되얏더라
원리를불너상소쓸지필을가져오라하니원종좌위창황던도하야즉시필연을터령하
니연왕이셔스관을불너입으로부르며쓰라하니그소에왈

右丞相臣楊昌曲 伏以人君天下 一語一動 宗

우승상신양창곡은복이인군이던하를다스림애일어일동을가브야이못하심은종

廟社稷 重 四海蒼生 苦樂 古之明君 進善之

묘사직의중함이여괴잇고스히창성의고락이달남이라연고로고지명군은진선지

旌 誹謗之木 言路 賢者 襄御之箴 左右之史

정과비방지목을세워언로를넌니고현자를오게하며설어지짐과좌우지스를두어

起居 非僻 大義之味 耳目之欲 心志之樂 聖人

괴거를삼가고비벽을물니느니고흔빛과도흔음식을취아니스랑하리오마는성인

이포박지문을말하고대강지미를넌거름은이목지욕을다하거어렵고심지지락을

궁진치못함이라 閭巷小民 千金財產 數三子孫 려향쇼민이 천금지산이잇고 수삼조손을두어도 오히려 평생을조
심하야 소욕을다 못하느니 所欲 萬乘之君 富有四海 子有萬民 하물며 만승지군이 부유스히고 조유만민하심이리오
충성된말이귀에 거스리고 아당흔소리 有益 一動一靜 모음에 합하나 왜흔말이 위티함이잇고 독흔
악이 병에 유익하느니 伏惟皇帝陛下神聖文武 即位之初 審德 巍巍 太平之治 朝野翹望 엇지일시즐거움을취하야 천추의 그릇침을도라보지아니리
오복유황데 一動一靜 폐해신성문무하사 즉위초에 一語一默 예덕이외와하사 태평지치를조야 天子 오망
하니 일동일정에 惠澤 베풀성이귀를기우리고 일어일묵에 만민이 목을느리혀왈우리런지
새로 즉위하사 即位 무슴혜택이게실고하며 人之常事 목근재물을기드림근고젧일은히어미
비라듯하느니 區區 이는인지상사라이제 陛下 폐해비록그소망을 所望 翕然 흡연케 못하사나 엇지참아하
여곰락담실망하야 落膽失望 구구이비람을저버리시오 陛下 폐해 風流 풍류를조하하사니 臣 신이 風流 풍류
를말습하리이다 樂記 악기에 曰大樂 與天地同和 동화라하교 又曰無聲之樂 日聞四方 우왈무성지악이 安樂 일문소방이
라하느니 人君 인군이덕을다그사 政事 정사를힘쓰고 教化 교화를베풀어 安樂 베풀성이 安樂 안락하교 天下太平 천하태평
흔죽로자는 老者 擊壤歌 和答 少者 康衢謠 격양가를화답하교 音律 無非風流 金石絲竹 匏土革木 不過 쇼자는 閭巷 강구요를노래하야 閭巷 려향의호던지소리와던
디에 地 득흔음률이 音律 無非風流 金石絲竹 匏土革木 不過 무비풍류라 金石絲竹 匏土革木 不過 금석소죽과 不遇 포토혁목은불과그소리를응함이니이

닐은성왕지악이라 聖王之樂 後世人君 후세인군은덕을다지아니하교 政事 懈怠 閭巷 愁歎 정사에 政事 懈怠 閭巷 愁歎 헛디하야 愁歎 려향의수단하
는소리랑자하거늘 浪藉 宮中 淫佚 風致搖亂 궁중에 風致搖亂 음일흔 唐明皇 梨園之樂 陳後主 玉樹之曲 풍치요란하야 生新 당명황의리원지악과 生新 진후주의옥
슈지곡이 兵塵 모음에 生新 즐겁고귀에 生新 성신치아님이아니라 生新 그즐거움과 生新 성신함을못지못하
야 兵塵 병진이니 左右諸臣 러나고나라이 聖德 贊襄 慨然嗟惜 陳唐兩君 망하얏스니 陳唐兩君 지금까지 陳唐兩君 개연차 陳唐兩君 석흔바는 陳唐兩君 진당랑군이바야
흐로 風流 풍류들드를때 或曰一時消暢 大德 聖德 贊襄 좌우제신이반드 聖德 贊襄 성덕을찬양하며 聖德 贊襄즐거온말습을하야 或曰天之 風流 혹왈
해무스하다하며 或曰一時消暢 大德 聖德 贊襄 혹왈일시 或曰一時消暢 大德 聖德 贊襄 쇼창이대덕에 或曰一時消暢 大德 聖德 贊襄 방해롭이업다하며 或曰一時消暢 大德 聖德 贊襄 혹왈고지당군도 或曰一時消暢 大德 聖德 贊襄 풍류
로쇼창하느니 消暢 야미련흔자는 手舞足蹈 슈무족도하야 手舞足蹈 기리즐거움을괴악하교 手舞足蹈 잔사흔자는 手舞足蹈 구시
심비하야 人君 인군의 人君 뜻을아당하다가 人君 밋마외지변과 人君 경양지화를당하야 人君 인군의 人君 자취함
을듯하교 妻 처자를보존함만싱각하느니 妻 오히려 妻 명황후주도 妻 도초디두하야 妻 비록왕스들
추회하교 直言 직언을싱각하느니 直言 임의 直言 밋철배업는지 直言 라연고로 直言 진견지정파 直言 비방지목은 直言 직
언을미리듯고 言 저함이오 言 설어지 言 짐과 言 좌우지스는 言 추회를기리 言 업게함이라 言 신이 言 업드
려싱각건대 陛下 睿智 폐하의 陛下 睿智 예지하심으로 陛下 睿智 엇지여기니 陛下 睿智 르시리오 陛下 睿智 마는 陛下 睿智 요순지치로도 陛下 睿智 고기직
설의 忠言嘉謨 충언가 忠言嘉謨 되 忠言嘉謨 곳치지아니하교 忠言嘉謨 탕무지성으로 忠言嘉謨 도이 忠言嘉謨 부주쇼의 忠言嘉謨 협찬명게함을마지아

니하야 국가존망이 조석에잇슴호니이 방미연고 제미말함이라 신은듯
 소오니 폐하이제 후원에 토목지역을니리히시고 민간에 가무지지를웁입샤 만고
 의총최함을도라보지아니시고 일시소창함을빙자샤 날마다일삼으시니아지못
 개이다 폐하를위하야이게교낸재누구오니잇가 선인이음란호소리와어즈러온빛
 을멀니함은그모음이방탕할가져허함이라 무릇모음이외물에변역함이비컨대물
 졌는듯하느니 폐하금일은소창으로하신즉명일은전례로하실거시오명일전례로
 하신즉우명일은일삼하하시리니 추추이왕하면금일드르시는풍류명일무료하신
 즉부득불재소리를싱각하실거시오명일재소리를싱각하신즉우명일은음성란색
 이차례로니를지니리원갈고와후정옥슈폐하압하아니니름을신이밋지못하느니
 다이를싱각하죽모골이송연하고잔담이서늘하야출하리구중현폐에머리를바슈
 어합연이모르고저하느이다 폐하만일일시소창을위하심인즉그후번곳치심이무
 어시어려오샤언관을죄주시며대신을폐출하샤 조령으로입을봉하고괴운이저상
 하게하시느니잇가 비록봉우지간이라도듯기슬흔말로척선함을저하하느니금일

폐하의 신조된재스싱고락이 폐하씩달녓고 화복영육이 폐하씩잇스오니엇지무단
 이폐하의듯고저아니시는말씀으로써런됨을거스려엄칙을저취코저하리오이는
 무래라나라이평안후제몸이평안하고나라이위하후제몸이위하하고로각각
 구구호소견을다함이니 폐하의일월초치봄으심으로엇지이를점작지못하시리오
 마는목전의즐거움이잇고리두의리해를보지못하심이라 광부의말씀을취할배업
 스나 폐하조령의언로를막으시고장차엇지코저하시는니잇가신은본디여남궁유
 로폐하의망극하신은덕을남스와벼슬이대신지렬에처하고부귀포의지인에극하
 오니견마곳치지현함도오히려먹이는님자를사랑하고돈어곳치우함도신의를
 안다하얏스오니신이비록불초무상하오나오히려견마돈어의심장이잇는지라참
 아그인군의록을먹고옷을납고스랑하심을바조와실덕하거조와망국할괴미를보
 고령허부월을저하하와슈슈방관호전마돈어에붓그릴배잇슬가하느이다복원
 폐하하이게교드린자를유스에붓치샤머리를버혀징일여백하고리원악공과
 후원신당을철파하샤 천하萬民으로하야곰일월초치봄으심과런디곳치홍대하신

聖德
성덕을알게하소서

던지이상소를보시고엇지하신고하회를보라

데이십칠회

의봉당에던지공류를드르시고

황교덤에란성이중독하다

儀鳳亭天子聽樂

荒郊店鸞城中毒

각설던지의봉당에서공류를드르시다가연왕의상소를보시고옥석이불열하샤로참
정을보시며왕집이비록덕이적으나엇지명황후주의망국홀파실이잇스리오로군이
왕이닐은당론이오니소유경의망솔홀파윤행문의위협홀파양창곡의어필홀이장뒤
상련하야일창일화홀이라폐해비록이에서지노과실이게시나엇지이곳치장대하야
괴세이위협홀이장차군부를구박하야강참에너을듯이하리오신이빅슈지년에분외
의던총을납스와탁당으로지목홀을감슈하오니금일말숨이공심이아니려니와창곡
이년쇼대신으로병권을잡아출장임상홀에방조무괴홀중윤행문은그쳐뵈오소유경
은그구일종식라이제관작을삭출홀을보고호당지심으로군부를공갈하니초습을정
게치아니신즉폐하조당에군신지분이엄서질가하니다상이부답하시고한림호스
를보샤연왕의상소를다시가져오라하시고던한이엄려하시며육안이씩씩하샤셔안
을치시며왕더는고요직설과이부주쇼로조쳐하고짐은당명황진후주에게비하니이

잇지신조의구괴리요하서고옥음을크게하샤왕리원데조는가가이나아와일시에공
류를알외라집이장차장야지악을하리라하신대동홀이단판을안고공류를알외고저
하더니로군이잔왕폐해엇지동홀을죄업시죽이고저하시느니잇가금일조당은폐하
의조당이아니라연왕의권세일국을기우려인주를하시하거늘그간하느공류를동홀
으로알외게하신죽이는연왕의뜻을거스림이라폐해엇지한적조조의동승죽임을정
각지못하시느니잇가신이또듯스오니폐해할일동홀을명하샤연왕을가보라하시니
연왕이노왕내장차슈령을보전치못하리라하니이는다름이아니라근일조당의용인
홀이연왕모를재업거늘홀이홀노련은을납스와조지슈중으로나지아님을통홀하야
임의죽일모임을둔지오래거늘이제만일다시그뜻을거스려당돌이공류를알원죽동
홀이목숨을보존하야합문박게나지못홀가하느이다상이더욱진노하샤공류를지족
하신대리원데저일시에선악을질탕이알외니초시연왕이상소를박치고뒤루원에안
저비답을기드리더니오래쇼식이업고리원의풍악소리궁중을흔들거늘정성이현박
하야련의를돌리지못홀을알고다시표를올림애상이보시지아니하고내치시며하교
왕연왕의상소를박아드리느자는참하리라하시니원리상소를도로가지고나와박치
지못홀을고하니연왕이개연이몸을니러왕내그저물너잔죽우리성주의붉은덕을누
쳐치시게하리오하교바로합문으로드러가니초시로군이임의던전군을지휘하야후
원문을막아연왕을드리지말라하얏거늘연왕이도라보지안코곳드러가왕내비록번

왜의 충성이 업스나 엇지 비달 죽임야 성주의 실편하심을 잔치아니리오호고 후원문을
 을드러의 봉녕압히다 다르니 모든 시위와 액례들이 도로혀 반겨일을 치우거늘 연왕이
 면폐에 오르니 어스대부한응문이 급히느려와 말녀왕황상이 승상을 드리말라하시
 니이다 연왕이 정석왕군은 홀노우리 성주의 신지아니나호고 일쌍봉안에 광쳐혁혁하
 야괴석이 심분준절하니 한응문이 괴운이저상하야 물너서거늘 연왕이 덩전에부복주
 왕폐하의과거하심이었지이에밋치시니잇고 신이수년전일기슈지로는 총을납스와
 폐하를조신면에보오니련안이온화하시고 옥음이덩녕하샤하교왕집이새로죽위하
 야다스리는도를아지못하노니너는짐의동량슈척이라그불데함을돕게하라하시든
 말씀이어제거늘엇지금일군신의봉녕에심괴를통치못하옵고이곳치외을줄알
 앓스리잇고 설파에루쉬홍포소매에젖거늘 좌우의보는재그충성이지극함을감동하
 야막불함루하더라상이진노왕경이비록직설슈쇼의착함이잇스나그진후주당명황
 꺾혼망국지군을엇지하리오연왕왕폐해엇지일시지분으로신하를억제코저하시느
 니잇가데순곳처착하시나고요의찬양하느말씀이무약단슈외라호고한조곳치영결
 하되송창의잔하느말씀이결슈지군이라하얏스오니신이비록고요송창의충직함이
 업스오니폐해엇지데순한조의종잔여류하느성덕을심각지아니시느니잇가상이더
 옥노왕집이명황후주곳혼일이무어시뇨연왕왕폐해덕을닥그신즉요순우탕이되실
 거시오덕을닥지아니하신즉명황후주되실지니호번모음쓰시기에잇는지라신이비

帝舜 皋
陶 丹朱
漢 祖 宋
昌 桀 紂

堯 舜
禹 湯

록불충하와 폐하를명황후주에비하오나 폐해만일요순우탕의덕이계신즉그듯는재
 요순우탕이라할거시오신이또한아당하야 폐하를요순우탕에비하오나 폐해만일명
 황후주의과실이계신즉그듯는재명황후주라하올지니복원폐하는다만덕을닥그시
 고신하의기림을깃거말으쇼셔련지영파에좌불안석하샤셔안을밀치시고어답에나
 안지샤왕근일조영에군신지분은업고각각편당을느화짐을탁당으로이곳치비척하
 느나연왕이돈슈왕폐해미양미안지교로신하를늘으고저하시나세간에신조된재엇
 지인군과당을느화권세를다도는재잇스리오이반드시간신의충언을신령하심이
 라원컨대상방참마검을빌어간신의머리를버혀던디잔썰썰흔룬괴를분할가하느이
 다상이어답을치시며옥음을놓히샤잔신이누금을박문하신대연왕이괴복주왕신이
 비록불초하오나벼슬이대신지렬에쳐하얏스오니폐해레스지디에엇지이다지독박
 하시리잇고참지정스로군은폐하의잔신이라제량조의탁용하신은총을납스와벼슬
 이죽하고빅발이성성하거늘다시무어슬희기하야아당하말씀으로군부를롱락하야
 레악을빙자하교당론을말씀하야은연이폐하로탁당령슈를삼아조영을흔복에못지
 르고저하오니폐해만일로군을버히지아니신즉스군지폐하조영에벼슬함을벗그릴
 가하느이다언필에연왕의괴석이당당하야눈을홀너로군을보니차시로군이덩녕에
 시좌하얏다가이거동을볼애비록쇼인의답이크기말곳흐나엇지송를치아니리오호
 연등우에섬이흐르며덩하에느려돈슈청되하니상이대노왕경이짐을이곳치협박하

니 장차 엿지코저 하는 노는 신대 옥음이 우뢰와 호사의 봉덩이 흔들날 듯 하니 지라던 상면
 하에서 위지신이 막불전을 하여 서로 보며 연왕을 위하야 대회는 릴가져 하되 연왕은
 일양스고 용용하고 성귀이 연하야 다시 기복주왕신이 엿지 군부를 협박하리 잇고 이 날
 은 호읍이 슈지로 소이다 신이 듯스오니 부무정조고 스무익위라 도몸이 위하거든
 이 제 폐하는 만승지군으로 일기 정신이 업스샤 외로이의 봉덩상에 안져 계시니 신이 참
 아물너가지 못하느이다 신이 또 호성성을 품부호재라 엿지 살기를 도화하고 죽기를 겁
 하지 아니리오 마는 만일 연의를 돌리지 못하교 스성을 도라보아 그 저결문을 나간 즉 문
 직현군 서반드시 쇼왕불충하다 연왕이여 덩종모발이 무비성은 이어늘 죽기를 겁하야
 군부의 과실을 월나라 사를이 진나라 파괴함보듯하느도 다하며 길에나 간즉 형로지인
 이다 토아 무쳐왕우리 성면적은 허물이게 시거늘 조덕빅관이 일인도 간하야 세다
 르시게 못하니 만일이의 서근일이잇는즉 인군이누구를 밋으시리오하며 집에 도라간
 즉 부피엄척하야 스군불충하야가 품을 떠러침을 슬허하고 조반에 오루즉 군지붓그려
 환득환실함을 춤밧출지니 폐해 엿지 써신으로 일조에 궁박한도적이 되게 하느니 잇
 가이 제 만일 일월지명으로 잠잔 돌니 샤의 봉덩을 해철하시고 리원을 파하샤 다시 정스
 를 힘쓰시고 간신을 멀리하신 즉던하 만민이 도화하야 왕복으시도다 우리 인군이여 일
 월이 부운을 헛침애 광쳐더욱 빗나시도다 착하도다 연왕이여 능히던 충을 밧조와 성쥬
 를 저버리지 아니도다 하리니 이는 폐해 삼시간 무음을 두루허하야 품성덕으로 스히

越、秦

雲南郡

에 우뢰와 고신과 치불충무상훈자도 엿어련은을 힘납어 현지상이 되을지라 신이 이를
 폐하셔브라지 아니하교 어느곳에브라 리잇고 말슴을 다함애 다시 량항루슈사에 드림
 을 세듯지 못하니 상이 분하야 니러나 샤티답지 아니시고 의봉덩후문으로 환궁하시니
 시위당왕하야 뒤를썩르니라 연왕이 홀업서몸을 니러터루원에나오니 상이 친필로
 하교왕점은 망국홀인군이라 짐의과실이더호후연왕의 충성이나타날지니 우승상양
 창곡을운남군에두비하하신대좌위고왕대신을 찬비하느는법이몬져 샅관방출하느
 이다련지노왕망국홀인군이 엿지법을알니오 밧비투비하하스대부한응문이 령거
 하야즉시 밧비하하하시니 홀연연하에 일인이대성왕연왕은 충신이라 폐해 엿지 충신
 을 용디치아니시느니 잇가하거늘 좌위보니이에 상장군되던 풍이라상이대노왕요마
 무위감히 무레하노 밧비결문밧고내치라하하시니 연전어식던 풍을잇글어내라호대련
 풍이두손으로조신연란잔을잡고웨여왕연왕은 국가동량이라 폐해련하를다스리라
 하시며 동량지신을 업시하시니 엿지이러호망국홀일이잇스리오상이진노하샤압히
 노인렬여의를던지시며왕로장의머리를밧비버혀드리라그렬여의련풍의니마를밧
 쳐피홀너얼골에 못하느니던 풍이크게부르지저왕신이분골쇄신하야도폐하를위하
 야연왕을구하교죽으리라연왕이충군이국함은던디신명이조림하시느니다만년과
 청춘이오과질이청약하야운남조흔악디에간즉성명을보전치못할가하오니출하리
 근디에밧구어보내쇼셔폐해일시지분으로현신을죽이시고불구에추회하시리이다

상이더욱노상사좌우를호령하야쉴니내여버히라하시니면전어시련위진립하심을
보고여러이런풍을쓰으려내어란잔이부러지며련풍이대성동곡왈신이시석풍진에
보전흔머리를연왕을구하다가죽스오니흔이업스오나폐해연왕을살니시고신을죽
이신죽죽은흔이라도즐거울가하느이다츠시어시련풍을쓰으려문의에나옴애상이
사하라하시고연왕의찬비를지축하시니츠시임의황혼이된지라연왕이엄명을받지
와잠간부중에도라와량천씩하직홀씩참담흔괴식과창황흔거동을엇지다말하리오
량천씩살어고왈성상일월지명이오래지아니사복히돌니심이게실가하오나츠시를
득교외에나가사흔솔을다리시고한양하심이도홀가하느이다래애왕이정이내뜻이
나맛당히갈곳이업도다연왕왈윤각뢰교외에향장이잇서산슈원림의경개아름답고
데택이협축지아날지라상의하야보쇼서래애덤두하더라연왕이물어나부인을작별
하교란성을차즈니란성이임의얼굴에지분을세척하고몸에청의를닙고안연이나서
거늘연왕이그뜻을알고왈금일은랑도또흔버슬이몸에잇는지라엇지더곳치적극을
조차가고저하느뇨란성이개연왈은남은악디오간인의함독함이난축하리니첩어엇
지평안이안져홀노위디에드러가심을보리잇고이제비록적극으로가시나일기가동
은다려가실지니첩의구구흔정을막지말으쇼서만일이일로조당에득죄흔죽첩이붓
그러아니하느이다연왕이그금치못함을알고인하야형장을지축하야가동일인파창
두오명으로일량쇼거를모라등정홀씩한어시일죽란성을보지못흔지라자로속시하

며가동의얼굴이고와비범함을의심하더라츠시로군이연왕을함독함이골슈에스못
더니비록만리적극이되야목전의근심을덜엇스나츠인을세잔에둔즉내잠을편히자
지못홀지라하교심복창두일인을한어스형중에쓰라보내야여츠하라하교다시
가인오륙명과일기조각을구하야보내야중로에관세하야계교를형하라하니그홍모
비계를엇지다축량하리오차설동마량장이연왕의원찬함을보고개연탄왈우리량인
이연왕의은덕을태산곳치납어부귀를곳치하교환란에서보림은의아니라이제연왕
이만리악디에일기심복이업시형하니우리맛당히장군의인슈를받치고연왕을조차
동스형하리라하교량인이즉시칭병스직흔대로군이본디량장의풍채인물을흠모하
야문하에두고저하더니보고요흔말로위로왈장군이연왕문인인줄내아노니이
제만일연왕씩하정성으로로부를조차놀진대버슬이엇지좌우장군에곳치리오하
거늘마달왈쇼장은무뎡라비록넷글을넘지못하교신의를모르오나엇지참아실세흔
넷쥬인을드리고득세흔새쥬인을구하리잇가설파에괴식이불평하거늘로군이그장
미라하야쇼연이디답지아니하니동최다시고왈쇼장등이본디소쥬사름으로고향에
도라가지못흔지임의수년이라잠간버슬을갈고부모분묘에쇼슬한풍이부러고묘벽
양의조손이잇슴을표하야정리를편후다시문하에나와와금일관타하심을넋지말가
하느이다로참정이미쇼하교량인이조괴문하에복쥬치아닐줄알고관직을거두게하
니동마량장이십분쾌활하야즉시필마단창으로남을향하야연왕을싸를식물머리를

련하야 행하며 동최마 달을 칩왕일을 경영하느 재추호주머귀를 부리고 저하니 룡군의
간특함으로 호변노호즉우리도 호타향적귀이 될지니 엇지 연왕을 조차 환란상구하리
오마달이 쇼왕대장 위불래호말을 드른즉 죽기도 겁하지아 날지니 엇지 더우치 간사호
말로 간인을 달리리오 하고 랑인이 서로 박장대소하더라 동최다시 글오티 우리 제연
왕을 쓰라 일행에 참여호즉 연왕이 필연즐거아니하실지니 멀니 행하며 불우지변을 괴
찰함이 가하도다 하고 수플과 들을 맛는 즉 흑증승을 산양하며 물을 달녀 던립하느 쇼년
의 모양으로 흑선 흑후하야 가니라 차설한어사로 군의 색임을 듯고 수일행중을 총집하
더니 오류일이 지내애 조연모음이 허티할뿐아니라 처쳐주덤에 든 즉 덤인이 연왕의 행
츠를 알고 모다 놀나왕이 상공이 년전에 도원슈로 출전하실시련로에 일호이 폐하심이
업서 지금서지덕화를 칭송하야 고금의 업는 바라하더니 이제 무슴죄로이 길을 하시는
노하며 주찬과 행츠를 가져지성으로 드리거늘 연왕이 일변 밋지아니호대 덤인 등이 한
어스씩 드리며 흑눈물을 흘녀왈 쇼디 등이 길가에 성애하야 조조손손이 전하느 말이 호
변출전행츠를 겨근 즉련로에 계견도 업다하더니 우리 양원슈행군하실적은 덤인이다
만발자최소리만듯습고 일비주를 허비함이 업소오니로 변지인이 각각 말하되 죠덩이
이러하신 상공을 쓰시면 백성이 살나라하더니 금일 초행이 무슴죄명으로 가시느니 잇
고한어시 말이 막히고 귀얄하심중에 성각하되 내일 즉연왕을 일키 쇼년대신으로 문무
쌍전함을 드릿스나 엇지 이호호명망과 덕해잇슴을 알앗스리오 하고 조연감동하야 덤

중에 든 즉 자조연왕스쳐에니 르러 슈작할시 연왕이 혼연관접하야 흑모음을 의론하며
문장을 말습하니 번화호괴상은 출풍이 만좌하고 부섬호호문은 바다이가을보지못하
스스에 항복하고 켜드를 지라한어시 단왕내평성에 허송세월하야 총사를 구경치못
하얏더니 금일이야 보다하고 도로 허행리를 각별보호하더라 차설란성이 멀험지풍과
총의지심으로 행석의구차함을 도라보지아니하고 다시그지아비를 조차가동으로 변
복하니 낮이면 괴거음식을 몸소 밋들고 밤이면 침션의복을 친이음알아 연왕의물호
번마심과 발호변음김을 그림조쳐라 슈유불리하더니 추시연왕이 떠느 지일삭이
라 추풍이 아니라 고하늘가에 도라가느기러기이원이 소리하며로 변락엽이분분이늘
니거늘 덕공의구름을 브라는심스와 두공부의복두들의지하느 정성이종일 초창비량
하야 심회를 진정치못하더니 일모후기덤에 드니 황성서스천여리라 일호은 황교덤이
니셔남으로 교지스시오동남으로 간죽운남디경이라 연왕이 행리를 안돈하교경야호
시경경호등잔을 디하야 던전이잠을일우지못하더니란성이압히나아가문왕상공이
취침치못하시니 신상이불평하시니잇가 연왕왈그러함이아니라 군천을리별하교외
로이작괴하야 환절함을보니 조연심시즐겁지못하도다란성이행중의술을 권하며변
화호말습으로 위로하니 연왕이비주를마시고왈요스이황성어히안주할만하리로다
하거늘란성왕아싸보오니덤문밋괴성션을파느재잇더니 무러보스이다하교덤인드
러무른대과연두어머리성션을들고오거늘란성이대희하야 천히국을쓰릴시슈하에

느려져진나 무를씩거 불을불며 솥을써서 골물하니 연왕이 보고 심중에 탄왈 나느 불충
하야 적괴이 되얏스나 더는 무죄히 고죄비상하도 다하고 창두를불너 맛기고 올나옴을
말하니란성이혜오대이제야심하고인적이본것스니 다른념업스리라하야 창두로
불을써우라하고 잠간방중에드러가 연왕을되서쭈작하다가 다시쭈하에느려가보니
국이임의다 되엿거늘써가지고올나와식기를기디릴시연왕이취중에저를들어맛보
고저하니란성이급히말녀왈경당문되오직당문비라평임함담을맛봄은녀의의일이
라첩이몬져맛보리이다하고흔번마시더니홀연그릇을싸에더져엿지르고소리왈상
공은잡습지말으쇼셔하며입과전신이푸르고입으로피를출니며성각이업스니엇진
일인고하회를보라

메이십팔회

초료퇴에 연왕이 화첩을 맛는고

草料堆燕王遭火劫

운남덤에란성이즈식을사로잡다

雲南店鸞城擒刺客

각설연왕이불의지변을당하야급히형중의히독할약을내여먹인후동정을기디릴시
한어시초언을듯고창황이니르러왕가동이중독하다하오니그엇지혼일이니잇고연
왕왈내또흔히득지못하거니와반드시간인이나를살해코저다가가동이횡리지익
을당함인가하노라한어시왈합하의덕망이남방에우뢰갓흐시니엇지이곳에모해할

재잇스리잇고이필연묘믹이잇슴이로다하고즈괴슈하의다려온창두를일일이불너
오라하니그중일인이잔곳이업거늘한어시대노하야좌우를호령하야연부창두와합
력하야일제이근포하라고이에연왕씩고왕하관이즈금으로승상문인이될지라엇
지심곡을은휘하리잇고하관이등정할때에로참정이일기한자를부탁하야다려감을
근청하거히락하엿스나그곡절을아지못하얏더니금일스기장수상하고그한재무
단이도망홀리업스오니썰니근포함이가할가하느이다하더라차설동초마달이연왕
일형을뵈아멀니새라오며산을맛나면즘승을산양하더니일일은흔머리스슴이압홀
섯쳐지나가거늘랑인이창을들고물을달너수리를조춤애그스슴이산으로드러가는
지라랑인이또흔물을노하준령을넘음개수풀이깊히심여리산곡중에니르니스슴은
잔디업고일기로인이암상에안져조을거늘랑인이크게웨여왈더로웁은압흐로지내
가는스슴을보지못하노로인이도라보고미히웃거늘마달이대노하야창을두루며
압히나아가쭈지저왈엇더흔하은이귀먹은데하고못노말을디답지아나하느노로인
이쇼왕그디는궁흔스슴을쫓지말고급흔사름을구홀지어다랑인이그말을듯고반드
시심상흔로인이아님을알고일제이창을늦코압히나아가무리침을청하야왕급흔사
름이어디잇스며누구를날으시느니잇가로인이이에일기단약을내여주며왕그디이
거슬가지고이산을넘어수리를형흔죽조연급흔사름을맛나인명을구하리라언필에
거체업거늘랑인이서로보며당랑구에다만그단약을가지고로인의말디로산을넘

어남으로 형하더니 츠시야 심흔지라 대로 조차 수리를 감애 일기 한재 망망이 오다가
량인을 보고 놀나 길에 위닷거늘 량인이 서로 보며 왈 더한자의 괴석이 슈상하니 우리
조차 잡아 그 거처를 힐문하야 보리라 하고 일시에 돌을 채쳐 잡으니 복석이 창두의 모양
이라 동최문왕네 엿더흔 사름으로 야심 후외로 이형하며 우리를 보고 놀나 피흐은 어인
일인 다 그 한재 황망히 왈 쇼디는 황성 창두로 급흔 일이 잇서 남방에 갔다가 도라 가는 길
이라 무인디경에 장군을 맞나니 즈연 겁하야 다라 남이로 소이다 동최우문왕 그러할진
대네 누집 창뒤며 무숨일로 남방어는 곳에 갔다 오노 그 한재 저저하며 말이 모호하거늘
량인이 심중에 생각하되 우리 연왕을 위하야 잔인을 과찰코저하더니 한자의 거지 십분
의심되니 경이 히듯치지 못하리라 하고 하마하야 그 한자를 반향을 힐문하야 짐짓 다름
애그한재 착급하야 왈 쇼디 길에 밤부니 량위 장군은 무단이로 상형인을 지리히 말으쇼
셔하고 손을 썩르쳐 다라 나라 하니 마달이 웃고 더욱 든든이 붓드러 왈 우리는 연령하
쇼년이라 근일 산중에 호정이 잇서 밤이면 길에 느려히 인과 직을 침범하도하더니 이제
네 창두로 환형함이 맛당히 결박하야 가지고 이 압직덤에 가사나 온개를 불너 그 진가
를 시험하리라 하고 물곳비를 쓴어 결박코저하더니 홀연 남뒤로 화광이 요요하며 룡철
기창뒤길을 덮혀 오거늘 그 한재의 결왕 장군은 잔명을 살니 쇼셔 쇼디더오는 자와 형원
이 잇서 만일 잡히면 죽을지니 썰니 노으쇼셔 오류기 창뒤 압홀 당하얏거늘 동마량인이
화광중그얼골을 보고 대경왈 너의 연왕상공을 뵈시고 온남 갖든 창뒤아니냐 그 창뒤또

흔경왕량위장군이 엿지 이곳에 니르시니 잇가하고 인하야 황교덤의 랑패흔 말을 고하
니 동쇼마달이 그결박흔자를 무르쳐 용모를 보라하니 모든 창뒤불을 들어 비쳐여 보고
크게 소리왈 잔인을 잡앗도다 하고 일제이다라 드러든 이 미여량장과 못치황교덤을
향하야 올세연 부창뒤만히 량장의 귀에 다이고 랑성이 가동으로 가다 가덤중에 중독
하야 회성지망이 업숨을 말하니 량장이 악연실척하고 서로 보며 왈 그로인은 이인이라
임의우리주든바 단약을 가졌스니 맛당히 몬저가 급함을 구하리로 다하고 돌을 채쳐 황
교덤을 바라보고 오니라 츠시연왕이 만리직디에 평성 총익하고 지괴지심하든 홍랑이
즈괴를 위하야 비명중독함을 보고 비록 대범흔 장부의 털척심장이 나역척 참독흔심스
를 엿지진딩하리오 앙련탄왈 괴이하도다 조물이 사름을 룡락함이 여내며를 우연이 맛
나 무한공파와 무궁환란을 격고 쓴어 진인연을 공교이다시니 어쥬년풍전에 고초를
치하고 전정부귀를 혼가지로 누릴가하얏더니 엿지 이곳에 와 비명원혼이 뵈술알앗스
리오하도다 시금침을 열고 몸을 문져 봄애 옥모화 용이 찬지 않고 영발흔괴상과 총해흔
죄죄돈연이 살아져온괴쓴어진지오래거늘 연왕이 탄왈이의라 내츄아너를 이곳에
리고 가리오 청산에 옥을 못고 슈중에 구슬을 일흐은조고로 차셔하든바라하늘이내슈
죽을버히시고 지괴를 아스시니 그모르는자는나를닐오대련련흔정근이운우풍정을
스모하다하려니와 그아는자는반드시빅아의산슈금이잇스나 좋즈괴의귀업숨을슬
허하리로 다하고 량왕루쉬소매를적시더니 홀연덤문을 급히 두드리며 량기쇼년이망

망이드러오거늘연왕이저세보니이에동초마달이라바로압히와문후하니연왕이경
왕장군등이엇지이곳에나르렀느냐량장이그좌우에외인업슴을보고되왕쇼장등의
초형은견마지성을본밧고져함이나급히못좁노니홍원슈의환회엇더하시니잇가연
왕이봉안에루쉬어려왕그되또한수년풍진에동고하든고인이라엇지창결치아니리
오하로밤찬서리에떠러진뜻을말할배업스니공등은다만치상지구를그음알아고인
지의를저버리지말라동최이에슈중으로단약을내여드리며로인의주든말을대강고
하니연왕이반신반의하야즉시갈아입에너흠애반향이못되야란성이구중으로다시
붉은물을무수이도흐후일이흐습수이며도라놓거늘연왕이대희하야량장을보며왕
란성의금일회형은량장의준배라슈연이나내오날죄인의형식으로또장군은구일중
시라만일곳치잔즉출연의구설이될지니장군에게대회형길썬아니라또한적각의엄
명을피와조심하느도리아닌가하노라량장이국궁되왕쇼장등이엇지합하의의향을
모르리잇고이제홍원슈던형으로무양하심을엇으시니쇼장등이맛당히지금으로하
직하고남방산천을편답하야홍중의불을호심스를덜고져하느이다연왕이침음쇼왕
내장군의뜻을아느니소형은저런이라장군은과려치말고썰니도라가라량장이락락
응성하고가니라아시오모든창뒤그한자를잡아오거늘연왕이정석문왕네일즉나와
은원이업거늘무단이치독흠은엇진일인다그한재처음은발명하더니이에도설왕쇼
디는로참정슈하심복창뒤라슈인의명으로독약을가지고한어스형중에쓰라오며상

공을해치고져하나가동이슈유블리하야식음을천집하기로감히하슈치못하얏더니
맛참가동이방중에드러가고불썩이는창뒤조을기를인연하야독약을시험하얏스오
니만스무척이로소이다연왕이미쇼하고한어스게보내여쳐치하라하니한어스본현
에보내여든둔히가두어조령을기드리라하니라차시란성이정신이청명하고신과여
상하니연왕이동마량장의로인을맛나여차여차함을말할대란성이반기며단왕이는
반드시우리스부벽운도스소이다하고져천을향하야지비사례하고초창할루하더
라익일연왕이발형전진하야다시십여일만에게림싸에나르니왕성서륙천여리라산
천이동탁하고인개회소하야혹벽여리에슈덤이업더라일기슈덤을차설시덤명은
초료덤이라슈덤전후좌우에식초를되곳차앗거늘덤인드러곡절을무른대덤인왕
이곳에서최귀하고또한남만과접게라창졸에병혁일이잇슨즉덤인과벽성이대군의
초료를념려하야미양가을이면미리준비하야이곳치쳐쳐에져축하야두느이다하더
라이날밤에란성이종용고왕이곳에잔인의총화무셔우니방심치못할지라창두와일
형을조속하야형리와거장을풀지말고등디하라고란성이천이직덤전후좌우로도
라든이며디형을숨혀보니덤후에일좌도산이잇서비록놓지아니하나산세동탁하야
초목이업거늘란성이심중에크게깃거실에도라와연왕을되시키고의되를글으지아
니하고안젼더니이윽고밤이소오경에니름에덤인이모다잠들고스면이적료하거늘
란성이연왕씨고왕이정히위티흐때로소이다잠잔이뒤로산에올나피흠이묘할가하

느이다연왕이쇼왕이엇지랑의조갑함이아니라란성왕비록허실을난축이나불가불
념이니이다하고수기창두로힝구를몬져만히옴기라고연왕을피서거려산상에
오르니덤중의아는재업더라아이고덤동편시초퇴에불이닐며경각간에전후좌우
에화광이충던야야그새름이흐르는별又흐니덤중이바야흐로대경요란야야구코저
가나엇지엇으리오한어셔또현식이미명야야밋쳐의관을못고화염을무릅써언
덕에올나오니이날밤동풍이대작야야급흔불결이풍세를싸라상하각덤이흔터럭
치붓흐니초시연왕일힝이임의산상에올나면화하엿스나한어스의거창마필과수기
창뒤화염중에허여나지못흔지라한어셔바야흐로연왕의잇는곳을알고차져오며왕
합해엇지알으시고미리피하사니잇가연왕이쇼왕만성이엇지료락함이잇스리오다
만스성이지련이라인력으로홀배아닌가하노라언미팔에산하에함성이요란하며십
여기한재각과단병을들고웨여알우리는독림각여당이라그디만일죽기를두려홀진
대힝중지물을썰니내여노흐라일변고함하며산상에오르라하니라란성이급히쌍검을
빠혀들고디덕고저하더니홀연랑기쇼년이창을들고물을노아화광을충돌하야드러
오며썩지저왕잔인은당돌치말고대창을밧으라네대군초료되를불질으니미련대죄
를짓고또무단흔과기를상하고저하는다우되又치소리하며수기한자를썰너격구르
친대모든한재일시에다라나거늘그쇼년이조차동충셔돌하야일장을식살하고크게
웨여알우리는던렵하느쇼년이라적한의충화작란함을보고구원코저왔더니도라가

느이다하고향남하야물을달녀잔곳이업스니이별인이아니라이에동초마달이라
초시동마량인이연왕일힝을멀니조차오더니초료되에화광을보고놀나와서구하고
갑이라연왕과란성은비록심중에짐작하나한어스는차경차회하야반향에게오경흔
을진딩하야조과창두와힝장을슈습하야보니랑기창두와필마거장은임의회신중에
드러난지라모다차악하야각덤에니르고저하니화염이오히려저지아니하고덤인
죽은재또무수하더라한어셔바야흐로모든창두를호령하야그창마존적한을쓰러오
라하니랑기한재바록중상흔배되얏스나죽지는아니흔지라한어셔대노왕네엇더흔
강도로승평세계에무단이충화하야힝인을갑박하느다그한재머리를숙이고디답지
아니하니한어셔더욱대노하야좌우를호령하야다시박문하니한재바야흐로고왕쇼
디이인이이디경에엇지과망하리잇고쇼디는이에로참정의슈하심복지인이라로참
정이사름을세패로보내여연왕상공을살해코저하니데일패는어스힝중에조차온창
뒤오데이패는쇼디등십여인이라스과를보아충화하되만일못되거든독림각의모양
으로갑박하야연왕상공을해치고온죽천금을주리라하기로쇼디저물을탐하야스죄
를범하얏스오니썰니죽여주쇼하거늘한어셔히엄서량구무언하더니다시문왕
그러홀진데삼패잔인은어디로가노한재왕데삼패는조각이라길이다른고로다만
그보냄을드러스나잇는곳은모르느이다어셔왕네우리를갑박흔죄뿐아니라대군초
료되를쇼화하얏스니살기를엇지못하리라본현디방관에분부하야현옥에가두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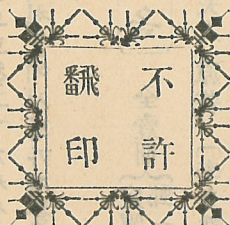
령을기드리라하고또호본현에과별하야마필거장을디령하리라차시상하진덤
이물수히붓치지점할곳이업스니연왕이한어스와산상에서경야하고익일본현가마
를기드려다시발히전진하야륙칠일만에운남디경에니르니일기직덤을딩고경야
홀시월척이명랑하고련괴소슬하야남방팔월이중국칠월과후곳흔지라연왕이괴창
을열고망월하며무료이안졌스니옥어진죽림에쳐량흔두견성과곳곳이찾나비이원
히우니연왕이잠을이루지못하고란성의손을잡아월하에비회홀시홀연담머리에찬
바람이날며므른납식늘니거늘란성이대경하야급히몸을니러방중으로드러가더니
부용검을들고연왕을피시고선지슈유에일기한재섬홀이월장하야느는다시연왕씩
범하거늘란성이황망이쌍검을들어막으니연왕을브리고란성에게다라드러월하에
분분흔칼이서로어우러져빅설이늘니는듯하더니한재필경넘어져탄왈내일죽검술
로회형하야던하에디떡홀재업더니이러흔검술은처음보는바라이는하늘이나를죽
이심이로다연왕이노즐왈네엇디흔놈으로누구를위하야무단흔형인을해코져하느
다차시임의모든창두와한어스일형이다니르러등축을밧힌지라그한재화광중에연
왕을잠잔우러러보고문왈상공이륙칠년전에부거하시느길에소슈로지나가시지아
니니잇가연왕왈네엇지이를아느다그한재탄왈쇼디비록눈이잇스오나영웅군즈를
몰나보고두번스죄에범하얏스오니상공은혹소슈로상에서슈지로맛나시든록림괴
을괴록하시리잇가연왕이바야흐로쳐듯고경왈네십년적한으로오히려구습을곳치

지아니하고다시즈괴으로든이니비록석일안면이잇스나죄를샤하지못하리라그한
재혀회탄왈상공이비록쇼디를샤하고져하시나쇼디임의칼에상흔배되얏스니다시
완인이되지못하려니와다만흔되는바느그릇로참정의천금을탐하야군즈를살해홀
번하얏스니살아눈업는적한이되고죽어의업는즈괴이될지니누구를흔하리오언필
에칼을들어즈경하니연왕이도로혀죽연하야수량은즈로써덤인을주어장하리라하고
한어스를향하야전일봉적하든말을하니어스와좌위막불탄식하더라다시오륙일을
형하야운남적소에니르니운남지뵈나와연왕씩뵈옵고스쳐를관부로딩코져호대연
왕이스왈만성이죄인의몸으로엇지관부에쳐하리오성의외의수잔민가를슈쇼하고잇
게하니라한어시키고귀홀시불승창연왈하관이맛당히타일문하에나아가오날비호지
못흔도덕문장을더비호려니와이제도라가황상씩복명하고일장표를네길에서본
바와로참정의오국흔바를탄박고져하느이다연왕이대경왈불가하도다형이나와수
사동형하야그말이공변되지못하니죽히쇼인의구설을더할가하노라한어시슈유고
별왈합하는국가를위하샤존례를보중하쇼서성상의일월지명으로추회하심이멀지
아니하실듯하느이다연왕이역시창연왈만성의불충음을인하야형으로괴롭게함이
이긋흐니바라건대원로에보중하라죽지아니하죽다시상봉홀늘이잇슬가하노라한
어시츄아찌나지못하야가동창두를면면이작별하고등정홀시연왕이또흔창두일인
을가중에보내야무스이움을괴별하니라차설로군이연왕을방축흔후위권이날노더

龍逢
比干

하야 문치가 인이 조령에 버렸고 인이 천척이 환로에 등양하니 밧그로 교식함을 꾸며 조
 덩을 겸역하고 안으로 아당함을 일삼아 군부를 망하니 던지더욱 밧으샤 조령대쇼스
 를 밧기시니 뜻이 마득하고 모음이 죽하니 양양조득하야 비록 겁함이 업스나 오직 연왕
 의 도라움을 두려하야 운남 잔 회보를 고되하더니 일일은 데이 패보낸가인이 도라와 랑
 패호쇼식을 고흔대로 참정대노하야가인을 중치하고 다시 생각되내상총을 일치
 아니하고 조권을 잡은 죽연왕이 비록 고요적설의 지조와 용방비간의 충성이 잇스나
 침리남방의 귀됨을 면치 못하리라 하고 이에 일계를 생각하야 동협를 청하니 장차이
 무승계교인교하회를 보라

옥루몽권지이 종



發行所

京城南部上鞏洞
 京城中部布屏下

新文館
 廣學書鋪

編輯 崔昌善
 發行 崔誠愚
 印刷 全人
 印刷 全所

新文館印出所

大正二年二月廿三日 印刷
 二月廿五日 發行

玉樓夢 卷二
 定價金四十五錢
 郵稅六錢

▲新文館發刊小說▼

불상훈동무

全壹冊 (定價貳拾錢) 郵稅四錢

英國 라미이夫人 原著 (崔南善譯)

기이훈조와큰뜻을품었스나가난혼집에나고부들
어주는이업는사됨으로참혹한재세상을써나노이악
이니고금무수훈서침중에서빚가지들삼노가운디참
예훈일흔난척이라

검둥의설음

全壹冊 (定價參拾錢) 郵稅六錢

米國 스토우夫人 原著 (李光洙譯)

이책은한쇼설이라하면그만이나실상은이빈만명군
수가전정을하고수빈만명중이량만이되게훈련리인
도의대언론이니이십여나라말에번역되고수빈만사
람의칭찬을엇은것이나라

자랑의단추

全壹冊 (定價廿五錢) 郵稅四錢

데데라하노한은회가이상훈단추한아를가지고하늘
나라에노곳센군수가되고이세상에서노날낸선비가

되는아름다운이야이니아모든지배오고생각을일이
만흔척이라

얼니버유람과

全壹冊 (定價拾錢) 郵稅貳錢

英國 스위프트 原著

유람조하하노한의원이우연히표풍을당하야산델이
갓흔왕사람이사노나라와손가락만할사람이사노
섬을구경하든기록이니기이훈이악이가척에가득하
나라

만인기

全壹冊 (定價貳拾錢) 郵稅四錢

英國 엠티워어쓰夫人 原著

이책은쓰게생진지물은집안의지화오오죽부즈런과
사랑이참복락을지여내노리치를그려낸것이니수실
은조미잇고필법은교묘하나라

絶倒百話

開卷嬉嬉

各壹冊 定價各拾錢 郵稅貳錢

이두책은古今笑話中特別히趣味잇는者百則식을選
하야輕妙洒脫한文으로記述한者一라

